

신치토세 공항에 거점 개설, 홋카이도 내의 타공항도 노선 확장 ~ 홋카이도의 대지로부터 복숭아 빛의 네트워크를 확대!! ~

- 2018년도 하·동계 스케줄 내에 신치토세 공항을 4번째 거점 공항으로
- 신치토세 공항에 야간 주기하여, 국내외 복수의 노선 취항 예정
- 신치토세 공항에서 홋카이도 내의 타공항으로의 노선 확장 예정
- 홋카이도 내의 타공항에서 혼슈의 공항 등으로의 노선 확장 예정

Peach Aviation 주식회사(이하: Peach, 대표이사 CEO: 이노우에 신이치, 본사: 오사카부 센난군 다리지초)는, 2018년도 하·동계 스케줄 내에 신치토세 공항을 4번째 거점 공항으로 지정하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신치토세 공항에 야간 주기하여, 동공항을 기점으로한 국내선, 국제선의 복수 노선의 운항을 새롭게 실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치토세 공항에서 홋카이도 내의 타공항으로의 노선이나, 홋카이도 내의 타공항에서부터 혼슈의 공항으로의 노선 등을 확장할 예정입니다.

신치토세 공항의 거점화와 홋카이도 내의 타공항의 노선 확장에 대해, Peach 대표이사 CEO 이노우에 신이치는 “Peach가 처음으로 취항한 노선은 신치토세 노선으로, 취항 초부터 도민 여러분, 관광 단체, 경제 단체의 여러분으로부터 신치토세 공항을 거점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받았습니다. 홋카이도는, 도오 지방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관광 자원이나 음식이 풍부하고, 아직도 잠재적인 수요가 큰 지역입니다. 많은 국내외의 고객분들께서 홋카이도를 방문하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므로, 기대 부탁드립니다. 또, 신치토세 공항과 홋카이도 내의 타공항을 묶는 노선을 확장할 것이며, 홋카이도 내의 타공항으로부터 혼슈의 공항으로의 노선도 확장하여, 도민 여러분의 가벼운 하늘 여행의 수단으로 정착해, 도민 여러분들께 사랑받는 친밀한 느낌의 항공사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라고 코멘트 했습니다.

Peach는, “여행을 더 일상처럼”을 컨셉으로 하여, 앞으로도 하늘의 여행을 보다 친근하게 느끼실 수 있도록, 일본 및 아시아 각지에서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Peach 에 대해 (www.flypeach.com)

Peach는 2012년 3월에 간사이 공항을 거점으로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2014년 7월에는 나하 공항을 간사이 공항을 뒤흔드는 거점 공항으로 하였고, 2015년 8월에는 하네다 공항에 취항했습니다. 하루 탑승 여객수는 13,000명을 넘어 노선수는 국내선 14노선, 국제선 10노선, 총 24노선을 전개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센다이 공항을 거점 공항으로, 2018년도 하·동계 스케줄 내에는 신치토세 공항을 거점 공항으로 할 예정입니다.